

큐비즘의 회화를 응용한 구두디자인 연구 - 피카소의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Application on Design of Cubism Paintings - Focused on Picasso Painting

반미선

동서대학교 디지털디자인 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Ban, Mi-seon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Dongseo University

• Key words: Cubism, Picasso, Shoes Design

1. 서론

구두는 자연 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한다는 기능적인 목적과 함께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패션의 소품에 불과하던 구두는 점차적으로 패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의 구두 디자인은 일반 의상과 마찬가지로 조형 예술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형태, 소재, 장식 측면에 있어서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회화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들이 개발되었고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회화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큐비즘의 회화에 나타난 입방체들은 많은 디자인에 모티브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큐비즘의 회화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틀림이 없으며 이러한 입방체라는 모티브의 사용은 큐비즘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사용되어져 왔고 활용되고 있다. 큐비즘을 재조명해 보는 것의 중요성도 이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위하여 국내외의 도서자료와 논문집을 토대로 큐비즘의 정의와 발전에 관해 알아보고 피카소의 작품과 그의 작품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 사례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큐비즘의 대표적 화가인 피카소의 회화를 응용한 구두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큐비즘의 회화를 응용한 디자인의 재조명과 발전 가능성을 알아본다. 또한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구두 디자인의 영역을 넓히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구두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큐비즘

2-1 큐비즘의 정의

큐비즘은 20세기 초 야수파(fauvism)운동과 전후해서 일어난 미술운동으로 입체주의라고도 한다. 그 미학은 회화에서 비롯하여 건축·조각·공예 등으로 퍼지면서 국제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그 특징은 무엇보다도 포름(Forme)의 존중에 있으며, 인상파에서 시작되어 야수파·표현파에서 하나의 극에 달한, 색채주의에 반동으로 보인다.




큐비즘이란 명칭은 1908년 브라크의 개인전에서, 비평가 루이 복셀이 "브라크는 포름을 경가하여 풍경, 집, 인물 등 모든 것을 기하학적 도형으로 환원 시킨다"라고 비꼰 것이 '큐비즘'이라는 호칭을 낳게 되었고 이즈음에 큐비즘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 크게 성장해 나갔다. 큐비즘이라는 것은

물체를 입방체처럼 분석, 분해해서 그 각 단면을 다시 재구성하는 평면적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다각적인 평면주의지 글자 그대로의 입체주의라는 뜻은 아니다.

2-2 큐비즘의 발전

1907년 이후 큐비즘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하며 색채를 버리고 물체와 대상의 볼륨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1910년부터 1912년 사이에 걸친 분석적 큐비즘이라 불리는 시기에는 대상의 분해가 철저하게 행하여 졌다. 색채를 쓰지 않고 형태의 분석과 질서를 추구하기 위하여 주제를 택한 다음 다양한 각도에서 주제를 보고 모든 면을 한 시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¹⁾ 이후 분석적인 성격보다 미리 잘라진 여러 개의 색채 평면을 종합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종합적 큐비즘이 발생되었고 구성의 새로운 방법으로 환영받았다. 그리고 이는 20세기 미술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표 1] 큐비즘의 분류와 특성

초기 큐비즘 (1907 - 1909)	분석적 큐비즘 (1910 - 1912)	종합적 큐비즘 (1912 - 1916)
		
아비뇰의 처녀들	칸와일러의 초상	기타, 악보, 유리잔
색채를 버림, 물체와 대상의 볼륨을 강조하여 표현	평면구조에 중심을 두고 형태가 세밀하게 결정화되고 사물은 해체됨	폴러주 기법을 도입

3. 피카소의 큐비즘 회화작품

3-1 피카소의 큐비즘 회화 작품

초기 큐비즘의 그의 작품은 그가 파리 트로이카데로의 인

1) 램벨트, 이석우 역, 20세기 미술사, 열화당, 1986, p20

류학 박물관에서 아프리카 전통조각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1907년 완성된 작품 <아비뇰의 처녀들>은 입체주의의 시작과 동시에 그의 대표적 작품이 되었다. 이 작품은 원근법이 배제되고 인물과 공간이 같은 차원으로 취급하였으며 인체를 평면적인 도형의 결합으로 그려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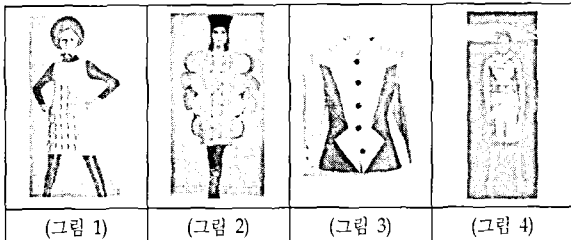
분석적 큐비즘에 들어선 그의 작품은 형태를 작은 구조적 평면들로 분해함으로써 형태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칸와일러의 초상>은 분석적 입체주의로 알려지게 되는 양식의 가장 좋은 예의 하나이다.

그후 분석적 큐비즘이 가져다준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분석된 회화는 대상과 너무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새로운 해결책으로 물감 이외의 이물질들을 도입하는 콜라주(collage)라는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피카소는 그 외에 파피에 콜레, 오브제와 같은 새 기술도 개척해나갔다. 콜라주라는 기법은 입체주의를 좀더 난해하게 만들었으나 화면은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종합적 입체주의로 불려지는 결정적인 특징이 되었다.

3-1 피카소의 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연구

미술양식은 같은 시대의 복식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복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특징 뿐 아니라,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내면적 동기로서의 미술 양식을 이해해야 함을 의미 한다.²⁾

큐비즘 시대는 20세기 초반부로 패션흐름은 직선형의 실루엣을 이루었다. 1910년대에는 벨 에포크(belle epoque)³⁾로서 기능주의와 더불어 직선형 실루엣이 시도되어 인체의 자연미가 추구되었다.⁴⁾ 이런 직선을 이루는 형태의 실루엣은 당시 미술사조였던 큐비즘에 나타난 직선과 곡선의 형태와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에 와서 큐비즘의 회화 작품은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활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1988년 S/S컬렉션에서 큐비즘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의상의 문양이나 디테일에 화가의 회화작품을 수놓거나 퀴팅하여 표현하거나 색상대비를 통해 입체적인 회화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피에르 가르망의 1967년(그림 1)과 1992년의 작품(그림 2)은 피카소의 분석적 큐비즘의 회화에 직선과 함께 나타난 곡선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외에도 (그림 3, 4)는 각각 절개된 형태가 분석적 큐비즘의 회화에 나타난 작품들과 흡사함을 알 수 있다.

2) 정흥숙, 근대복식문화사, 경춘사, 1983, p411
 3) 벨 에포크(belle epoque): 프랑스어로 "좋은시대"라는 뜻으로 일시적으로 지난 과거의 좋은 시대를 말한다. 패션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 공연을 계기로 일어나 동양풍의 신비
 4) 강경자, 피카소의 큐비즘 작품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연구, 이화여대 산업미술대학원, 1993, p26

큐비즘과 더불어 피카소의 회화 작품은 직, 간접적으로 패션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4. 결 론

입방체를 이용한 디자인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디자인 발상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더욱 패션에서는 그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구두디자인에서 역시 엿볼 수 있었다. 분석적 큐비즘 회화에 나타난 퍼즐 조각 같은 형태를 패치워크기법 이용하여 구두 디자인에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패치워크패턴을 활용할 수 있었으며 큐비즘 회화의 기본인 면 분할 기법을 구두패턴에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재단패턴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구두의 장식 및 구두의 굽까지 그 디자인의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결론을 토대로하여 제작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 강경자, 피카소의 큐비즘 작품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산업미술대학원, 1993
- 김은경, 20세기 신발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2000
- 램벨트, 이석우 역, 20세기 미술사, 열화당, 1986
- 임경옥, 피카소 작품 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 정흥숙, 근대복식문화사, 경춘사, 1983
- 존버거, 박홍규 역, 피카소의 성공과 실패, 아트북스, 2003
- F.에드워드, 김인환 역, 큐비즘, 미진사, 1985